

# 전남도-광양제철, 조업정지 놓고 날선 공방

### “제철소 운영 중단 조치” vs “방지사설은 사업자 기본 의무”

####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 통지... 18일 청문회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국내 철강 업계와 환경당국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반면,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고 일축했다.

◇“불가피했다” vs “오염물질 배출해놓고 할 말이나”-전남도를 비롯한 환경당국과 철강업계 간 대립각은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면서 촉박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고로(용광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

지했다. 전남도는 관련 업체의 이의 신청을 수렴, 청문 절차를 진행중으로 오는 18일 청문회까지 예정된 상태다.

불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인위적’으로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데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고로는 2~3개월 간격으로 쇠물 생산을 중단하는 ‘휴풍’(休風)을 하는데 고로 폭발 우려가 있어 불리더를 일시 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는 철강업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밸브를 ‘수동’으로 열었는데,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폭발이나 화재 발생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불리더를 개방했다’는 업체 의견을 감안,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로 정비 과정에 발생하는 작업”이라며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또 “정기적·주기적인 보수를 위한 ‘휴풍’(休風)으로 ‘이상’ 공정이 아니라 환경부 입장까지 반영해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측은 “대기환경보전법(26조)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 책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업 중단하면 매출 손실 수천억” vs “과징금 처분하면 영업 가능한데...”=24시간 상시 가동해야하는 고로를 10일간 가동 중단하면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철강

업계 주장도 “확대됐다”는 게 전남도 등 환경당국 판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37조)은 ‘조업정지처분을 같음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업체측이 원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 등 당국은 이같은 점을 들어 10일씩이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는 철강업계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환경당국은 “대체 기술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 업계 특성상 정기적으로 불리더를 개방할 수 밖에 없었다면 지역민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지 고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대체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환경 당국도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느냐”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정부, 800만 달러 대북 무상지원 의결

### WFP·유니세프 통해 아동·임산부에 영양식품·의약품 등

정부가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여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에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일부는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 쓰인다.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교추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결정했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지원 방안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中 로켓 ‘창정 11호’

### 서해서 첫 해상발사 성공

‘우주굴기’(掘起)를 주창하며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 서해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로켓 해상발사에 성공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5일 낮 12시 6분 동경 121.19도, 북위 34.9도 서해 해역에서 창정(長征) 11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창정 11호는 지난 1월에 도인공위성 4개를 싣고 발사에 성공하는 등 모두 6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했으며, 해상에서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창정 11호에는 실험 위성 2기와 상업 위성 5기 등 모두 7개의 위성이 실려 발사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로켓 해상발사를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대외적으로 우주항공 강국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 첨단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내·외에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항천국은 “이번 로켓 발사 성공으로 중국의 해상발사 기술의 공백을 채웠다”면서 “발사 지역이 공해에 있어 로켓 잔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성공으로 중국은 부유식 해상 발사 플랫폼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며 “앞으로 우주 탐사의 비용과 위험을 크게 줄여 우주 탐사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 정박 중인 다이버 플랫폼에서 한국-헝가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한국과 헝가리 당국은 인양 준비를 위한 잠수 작업을 실시하며 선체 주변 실종자 수색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 다뉴브강 침몰 ‘허블레아니호’ 결속작업 착수

### 파손 출입문에 그물망 설치 등 시신유실 방지 강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결속작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침몰현장에서 수중 시신수색 작업을 종료했다”면서 “오늘부터 인양을 위한 선박 결속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헝가리 당국은 가능한 한 오로지 크레인만을 완전히 결속할 계획”이라며 “코마름 지역에서 오는 오전 5시 30분께 출발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머

리트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다. 헝가리 당국과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합동회의를 하고 선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신의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우선 양측은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선체 중간 부분의 파손된 출입문에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선체의 작은 창문으로는 시신 유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양 준비과정에서 작은 창문을 깨서 선체 내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압력을 낮추기로 했다.

양측은 주로 선미 부분에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평가 감사 착수키로

### 경실련, 투기유발 이유 청구

감사원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직무유기 ▲공시지가 축소로 세금징수 방해 및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그러나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탁자 책임 원칙) 행사의 적정성’과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관리의 적정성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의 행사기준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태’ 감사에 반영해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맨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두동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버드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주택있음)별장형 단독 좋은 1억5백
- 서구 마곡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은 5억8천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밀증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펜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비대인점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펜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귀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